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충청권 협력방안」 전문가 세미나 개최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의장 이창기)는 2011년 8월 23일(화) 오후 4시부터 유성호텔 2층 프린스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충청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와 과학벨트 거점지구 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 충청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충청권 차원에서 대응과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지역혁신체제 내 대학, 출연연, 지원기구 등 관련된 전문가들의 논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산업연구원의 김정홍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금년 12월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비즈니스 및 정주환경과 관련한 충청권 의견 개진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역할을 재검토하여 충청광역경제권에서 육성하려는 선도전략 산업과 중북성은 파하고 차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 간의 이해조정 등을 통한 거점과 기능, 전국의원활한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어 대전발전연구원의 황해란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과학기반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CERN의 사례를 들어 기초영역과 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기초-응용 사업화 간의 연계고리를 밀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학기반의 클러스터는 창조형 융·복합형, 광역형 클러스터의 방향이 바람직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정부의 개입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청발전연구원의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은 과학기술협업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발전의 도모, 과학기술의 성과 창출 내실화와 응용 사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권 지역 R&D 혁신역량 결집 및 경쟁기반 강화와 충청권 공동발전기초원동력과 구심체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과제 대 토론회 개최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이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과제 대토론회가 25일 10시30분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총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축사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본질과 무관한 것들로 국론을 불연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학벨트와 관련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과학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 하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전발전연구원 강영주 연구위원은 과학벨트 조성에 따른 대전시 대응 과제를 발표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종시나 대전 유성구 등과 연계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과학벨트 성공의 관건인 국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해서는 연구 자율성과 인센티브 만큼 국제적인 정주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계안을 내놨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신동·둔곡지구에 교육·의료·생활 등 모든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어느 정도 국제적인 정주환경이 조성돼 있거나 조성

계획 중인 대전 유성구나 세종시와 연계해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손 본부장은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전-거점지구-세종시를 잇는 연결도로 확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전-세종사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필요성도 제시했다.

토론회에 동석한 김신근 대전대 교수는 "과학벨트 사업을 중앙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계적 과학도시로 거듭날 기회를 맞은 만큼 시는 과학연구 예산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행정조직도 과학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본부장은 "6개 분야 28개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플랜을 현재 짜고 있는 중"이라며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광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기초과학이라는 뿌리는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비'라는 열매만 갖고 '장탈전이 벌어질 판'이라며 "과학기술계의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학벨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

전국아동 대상 두근두근경제페스티벌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협의회와(사)한국경제교육협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KB금융공익재단, KT,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두근두근 경제페스티벌'이 전국에서 모인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실시된 두근두근 경제페스티벌은 경제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꿈을 쉽게 실현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주제로 꿈을 이루는 희망경제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교육협회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생각하고 각자의 꿈을 설계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협의회는 경제교육지원법에 의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간의 협의체로 대전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 대구경북연구원 경제교육센터 등 전국 11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경제교육센터는 각 시도별로 설치되어 지역경제교육의 선진화와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d

“ 2011년 대전경제교육센터와 함께하는 경제페스티벌 개최 ”

신나는 게임과 함께하는 체험형 경제교육

대전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에서는 2011년 8월 18일(목) 오류동 사학연구회관에서 대전권 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제5회 경제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경제페스티벌은 게임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간접적으로 경제주체를 체험함으로써 초등학교생들의 경제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구성은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 강의 및 물물교환게임, 경제 골든벨, 모의기업경영게임, 시장판매게임 등의 다양한 게임형식으로 되어있어 참가한 초등학교생들이 경제활동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금일(8월 18일) 경제페스티벌 개최에 앞서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조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경제페스티벌이 참가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인식과 소비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것이라며 참가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시와 기획재정부 지원 대전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는 2006년 지역 경제교육센터로 지정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경제페스티벌'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경제페스티벌에 참여한 학생 수는 1,200명에 이르고 있다.

참가자들이 따로 지불하는 비용 없이 기획재정부의 무상지원으로 제공된다. d

“ ‘대한민국의 중도, 대전광역시를 말하다’ 세미나 개최 ”



중도일보와 대전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가 주관한 중도일보 창간60주년 기념 '대한민국의 중도(中都), 대전광역시를 말하다' 세미나가 김원식 중도일보시장과 엄홍철 대전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열렸다.

엄홍철 대전시장은 축사를 통해 "중도일보와 대전시는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60년 전 대전을 신중심도시로 비전을 설정한 중도일보의 해안에 놀랐다"며 "중도일보의 비전대로 60년이 지난 지금 대전은 신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선 조성남 중도일보 주필이 '60년 전 중도일보가 지향했던 '중도'의 비전'을 제1주제로 발제하고, 안정선 공주대 교수와 차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성기훈 중도일보 상임고문 등이 패널로 토론을 펼쳤다.

이어 조옥형 대전시기획관리실장의 '60년 후 신중심도시 대전이 지향하는 비전'이란 제2주제 발제에 박정현 시의원,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d

“ 2011 하계 대전 · 충남 중등교사 경제직무연수 개최 ”

2011년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대전 중등 2011-06 2011. 4. 21)으로 선정된 대전경제교육센터에서 개최한『2011 하계 대전 · 충남 중등교사 직무연수』가 4박5일(11.25-29)간의 일정을 마치고 유성 레전드 호텔에서 7월 29일(금)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는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과 대전시청관계자, 대전경제교육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임토의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 중 우수분임으로 제4분임이 선정되어 표창이 수여 되었다.

수료식에 앞서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본 연수는 중 · 고등학교의 경제 교과에 활용 가능한 실천형 연수로서 교사의 경제교육 자질을 향상시키고, 연수 참가자들에게 창의적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간접적 교육효과를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참가교사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했다. 이어서 4박5일간의 일정을 마친 이수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수료식은 마무리 되었다.

연수는 시장경제원리의 이해, 경제교육 교수학습 방법 등 총 10과목의 강의와 참가교사들(연수자)이 직접 참여하는 분임토의로 진행되었으며 연수를 일차내용으로 구성할 강사진은 한양대 손정식 명예교수 등을 비롯한 대학교수, NowHRD Group 등 컨설턴트, 그 외에도 KD 교육실장 은행지점장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금번 개최되는 경제 직무연수는 제 10회째로서,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의 경제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 수는 400명에 이르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에서는 교사 이외에도 매년 5,000명 이상의 학생, 주부, 일반인, 취약 계층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한 경제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j

“ 공동체회복 및 대전발전을 위해 만나다! ”

대전발전연구원 - 한국시니어클럽협회대전지회 - 그린생활협동조합 공동체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8월 24일(수) 오전 11시부터 대전발전연구원 회의실(3층)에서 ‘대전발전연구원 · 한국시니어클럽협회대전지회 · 그린생활협동조합 간 공동체회복 및 대전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김성주 그린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강숙자 한국시니어클럽협회대전지회장(유성시니어클럽 관장), 박준호 대전 [사구]시니어클럽 관장, 김문규 대전대덕시니어클럽 관장, 김영옥 대전동구 시니어클럽, 김천장대전중구시니어클럽 관장 등 기관별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상호 홍보 및 상호구매에 따른 공동번영, 노인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사회 참여에 대한 공동협력, 기타 지역발전 등 협약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시니어클럽대전지회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지난해 956명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했고, 고유사업 등을 통해 14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에는 매출목표를 30억원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에 매진 하고 있다.

그린생활협동조합은 품질 좋은 유기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과일 등과 생필품을 공동구매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대전시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전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의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각 기관들과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대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합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j



“ 대전발전연구원, ‘대청호오백리길 청소년탐사단’ 캠프 ” “쏙쏙” 창의적 체험 학습의 장 마련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이 주최하는 대청호오백리길 청소년탐사단 여름캠프가 8월 4일 시작되어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산과 사람과 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서 참가한 학생 400명이 우리 지역의 청정자연환경 보고인 대청호 주변 둘레길과 산길을 포함하는

대청호오백리길을 걷고 체험하며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 학생들은 체험 캠프 중 대청호오백리길 주변 쓰레기 청소 등을 통하여 환경정화 활동에도 참여하고 아름다운 대청호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제출한다. 특히, 대청호오백리길 식문화 체험 활동과 동구 직동 효평분교 캠프 아영장 사용은 대청호와 연계한 지역 농산물 이용하고 폐교를 활성화함으로써 홍보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학생들에게는 향토문화에 대한 사랑을 고취 시키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으로써 청소년기에 필요한 협동심, 인내력, 판단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9일 캠프장을 방문한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학생들에게 "자연환경은 미래의 꿈나무인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청정자원으로 대청호의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느껴서, 대청호오백리길을 대표 녹색생태관광지로 가꾸어 나갈 것"을 당부 하였다.

'대청호 오백리길 청소년 탐사단'은 대청호의 청정자연과 녹색성장의 접목을 통하여 대청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청호오백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은 이번 캠프를 통하여 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환경보존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시키기로 하였다.

“ 대전발전연구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주제로 포럼지 발간 ”

이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눈을 돌려야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사회적 요구의 충족과 문제 해결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경제적·사회적 목표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사회적 소외와 실업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시정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대전발전포럼 제 37호를 발간했다.

이번 포럼에는 박용남(지속가능성 도시 연구센터 소장), 김제선(푸뿌리사립대 상임이사),

송두범(충남발전연구원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 민양운(대전여민회 사무처장), 정선기(대전발전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권지현(마을과복지 연구소 대표) 등 총 6명의 인사가 참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관련정책을 살펴 보고,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

박용남 소장은 "금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지자체·기업·연구기관·시민사회 영역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롭게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며,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가 육성기관인 아쇼카(Ashoka) 재단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져 정부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길도 신중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송두범 센터장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관련 유사정책들과 중앙 정책사업 현황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유용성에 대해 소개"한 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과제를 발굴·공유하면서 이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에 대한 역량강화로 주민 주도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고 제시했다.

정선기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빈부격차를 해소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경쟁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당안해 보아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외국의 성공한 사례들을 성급하게 지역에 적용하는 문제들은 분명히 짚어 보아야 한다" 고 밝혔다.

대전발전포럼을 발간하며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나마 진단해보고 향후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과제를 거칠게나마 도출해보고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대전발전포럼 제37호를 발간하였다"고 말하며 "대전의 사회적기업 발전과 육성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발표된 상세 내용은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djdi.re.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분기별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기획특집을 마련하여 대전발전포럼을 발간하고 있다.

대전 국제도시 수준 정례분석 지표 개발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윤기석

1 서론

이 글은 대전광역시의 국제화 수준을 정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구축하여 대전의 국제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시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아이디어 및 개발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함의를 두려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국제화 평가지표는 대전의 도시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미래 시점에 초점을 둔 국제화평가모델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국제화의 배경 및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대한 이론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다음의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에 의한 지방의 국제화가 있다. 거버넌스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시민사회-시장 간 연계구조와 협력적 관계를 설명하는데(이중수 2004, 64), 오늘날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공공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블록, 국제기구, 국가,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방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뛰어넘어 지역블록 및 세계기구와 직접 조응하는 주체로 부각되고 있고, 나아가 지방분권화정책과 공공부문의 개혁 실시로 통제위주의 정부 간 관계가 완화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은 국내외적 변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국제 활동의 주체로 기능하며, 이러한 결과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지방의 국제화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설명되고 있다.

둘째, 생산기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있다(이은재, 1994: 1552-1553). 현재의 국제관계는 네트워크를 가속화하여 다른 지역의 개인들과의 연계성이 향상되어 개인과 공동체에 주요한 변화를 주고 있을뿐 아니라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 국제화는 일반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송하중·윤지웅·김주경, 2008: 2).

셋째, 세방화(globalization)의 확산·심화가 지방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과 지역적 특성 및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방화의 시대적 환경에서 지방의 국제화는 더욱 촉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지방정부-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어 전통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어 지역 스스로 국제화의 주체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결과 국제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도시의 개념과 도시경쟁력

국제도시의 개념은 국제와 도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어이다. 도시가 국제성을 가지면 국제도시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성의 수준과 추진 방향에 따라 다양한 국제도시의 특성이 나타나므로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아 종합·정리함으로써 국제도시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국제화와 가장 유사하게 이용되는 용어인 세계화와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대전광역시, 2010, 13).

국제도시의 개념적 맥락을 설명하면 국제도시는 규모와 상관없이 외국기업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민족, 인종, 계급에 따른 독특한 문화가 한 도시에서 융합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문화는 오랜 시간이 축적 되어야 만들어지는 산물이므로 국제도시는 외국인이 유입되어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을 유입할 수 있는 산업, 교육, 정주기반 등의 여건이 마련된 도시이다. 지방자치가 점차 심화·발전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제도시로의 발전이 거대도시 혹은 거점도시만으로 대상을 한정지을 수만은 없고, 규모와 상관없이 오늘날 도시들이 처한 국제화의 대응은 도시의 생존이 걸린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반면에 국제도시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계도시의 성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체계가 도시의 기능·공간분업·구조·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국제자본의 공간조직과 생산이 이루어지고, 셋째 시장의 거점으로 작동하고, 넷째 세계도시의 통제 기능은 도시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로 표현되고, 다섯째 국제자본이 집결되고 축적되는 장소이며, 여섯째 수많은 이민자가 모이는 장소이고, 일곱째 경제적·공간적 양극화가 발생하고 도시성장에는 국가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사회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프리드만, 대전광역시, 2010, 15).

〈표 1〉 국제도시 및 유사개념 비교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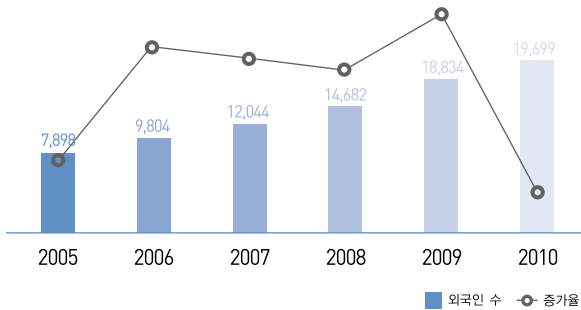
용어	정의
국제 도시 Iteratori City	여러 도시 및 지역들과 상호 교류하고 다른 문화를 익히며 각기 다른 문화가 융합되지만 도시 교유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보다 더 발전하는 도시
세계 도시 World/Global City	국제 금융센터(국제기구), 다국적 기업본사기 위치한 도시, 국제적인 기구 및 조직의 사무국이 위치한 도시, 서비스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 세계를 지배하는 제조업의 중심지가 있는 도시, 교통수단이 국제적으로 결철된 도시, 인구가 대도시인 도시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도시

다른 도시 및 지역과의 경제, 환경, 문화적 교류 뿐 아니라, 대전 고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써 국제도시로의 지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도시의 국제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지방화만을 추구 할 경우 글로벌 시대의 각 도시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가져올 경제·문화·자원의 교류 및 상호 보완의 발전에서 뒤떨어지고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화와 국제화를 슬기롭게 조화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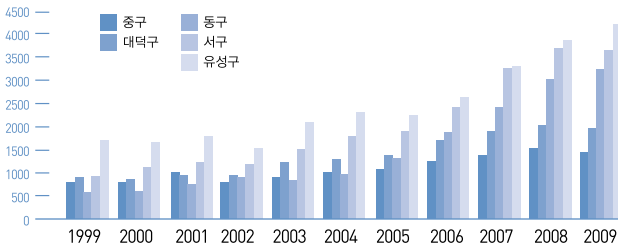
3 대전광역시 국제화 현황 및 실태분석

우리나라의 세계화의 속도를 가능할 수 있는 주요 척도의 하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02년 229,648명으로 시작해서 2010년 현재 55,794명으로 집계되어 8년 동안 약 2배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2004년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03년 252,457 명에 비해 약 185,497명이 증가된 437,954명으로 조사되어 2004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높은 상승 곡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2010년을 기준으로 총 19,699명으로 주민등록 인구(1,484,180명)의 1.3%에 해당되며, '09년(18,834명)과 비교할 때 4.6%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 2〉와 〈그림 1〉은 외국인의 증가율과 구별 외국인의 증가율을 설명하고 있다(대전 광역시 자료, 2011).

〈표 2〉 대전광역시외국인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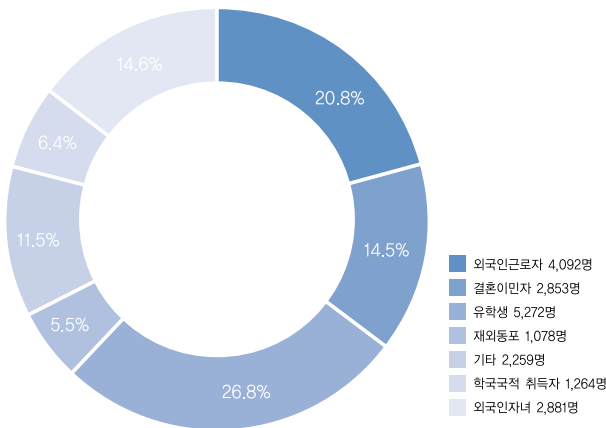


〈그림 1〉 대전광역시 구별 외국인등록 인구 증가 현황



외국인의 구역별 거주 현황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전광역시 5개의 구역 가운데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특징은 유학생 5,272 (26.8%), 외국인 근로자 4,092 (20.8%), 결혼 이민자 2,853 (14.5%), 외국인 자녀 2,881(14.6%) 등으로 주로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2〉 대전광역시 거주 외국인 특징



또한 외국인 국적을 보면 (2009.8. 기준) 중국인 5,358 (38%), 한국계 중국인 2,252 (16%) 으로 약 54% 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뒤로는 베트남인이 1,279 (9%)명으로 거주하며, 그 외에 60개국의 나라에서 온 10인 이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체류 목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유학, 교수, 연구, 기술지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의 도시적 특성과 SWOT 분석

〈표 3〉는 대전시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며, 위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국제도시화 추진정책과 이를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3〉 대전광역시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최대의 R&D 집적지 · 대덕연구 단지 내 우수학교 및 연구기관 입지 · 국내 타 도시, 지역과의 2시간 내 접근가능(KTX) 한 교통·물류·첨단산업의 중심 · WTA(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 중주도시 · 온화한 기후와 도시의 안전성 (교통사고·범죄안정성 우수) · 거주외국인 대비 유학생비율 전국3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도시부문 이외의 낮은 인지도 · 국가 거점공항으로 낮은 접근성 · 국제적 생산(산업) 기반 미약 · 국제화 교류거점 미흡 · 전통문화유산 및 관광자원 부족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확정 · 거주외국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 ·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활발한 움직임 · 국제과학연구기관의 유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국내·외 도시들 간 경쟁치열 (첨단산업단지, 창조적 도시환경 조성 등)



4 국제화 지표수립 방향과 설계

지표체계 구성 원칙

본 연구에서 설계하려는 국제도시화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는 대전이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의 자세는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 그리하여 외국인을 위한 환경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지표로 복잡한 도시현상을 분석하는 이유는 해당 도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지표는 '세화'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시민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화 지표는 지표의 신뢰성, 상호 일관성, 투명성, 측정 가능성, 대표성 등의 개념이 반영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아래의 〈표 4〉는 위와 같은 원칙이 반영되는 지표 구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표 4〉 지표체계에 적용되는 원칙

원칙	주요 내용
상이한치원간의 균형	지표체계가 너무 크면 신뢰성을 잃음
	선택이 이루어져야함
	선택시 주요관심영역을 다룸
지표체계 상호 관계	상이한 영역간 중요성의 차이 고려
	상호 일관성필요
	단일지표의 비중이 비례적이어야 함
지표체계접근성	지표체계는 투명하고 접근 가능해야함
	쉽게 이해가 되어야함
	지표수가 너무 많으면 신뢰성을 잃음

출처 : Atkinson Toy · BeaCartlin · EricMatier · BrianRobn(2002)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시 국제화방향 및 발전방향 연구, 2009 재인용

대전 국제화 지표 선정

대전 국제화 지표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아래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화 기반은 국제교류 국제통상 국제관계, 외국인 편의 부문으로 나누어 총 18개의 세부지표를 제시하였고, 국제화 활동은 인지도, 다양성, 시민의식, 네트워크등으로 나누어 총 13개의 세부지표를 작성하였다.

<표5> 대전 국제화 지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국제화 기반	교류	자매도시 수
		우호도시 수
		국제 행사 개최 수
		국제 회의 개최 건수
	통상	해외 투자 규모
		무역 규모(수·출입)/ GDP
		외국인 기업 수
		전시장, 국제 회의장, 관광호텔수
	관계	외국 대사관 수
		외국 영사관 수
		국제 기구의 수
		해외기업의 수
	편의	외국인 학교 수
		외국어 방송 수
		외국인 지원센터 수
		교통 접근성
		외국어 표기 교통 이정표 정도
		생활 편의를 위한 외국어 정보지 발행 건수
인지도	지방의 국제화 집지에 실린 횡수	
	세계 포털 구글(Google)한달 기준 평균 검색 건수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	
	인구 대비 외국인 수	
	문화권별 외국인 다양성	
	범죄 안전율	
	도로 교통 사고 안전율	
국제화 활동	시민의식	국의 우편물 이용률
		외국인에 대한 주관적 친밀성 정도(설문조사)
		위성방송 수신 비율
		외국인 커뮤니티 수
	네트워크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수
	내·외국인 참여 축제 행사 건 수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대전이 국제화된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의정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이 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몇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세계도시 및 국내들과 비교하여 현재의 자기 도시의 위상을 파악하고, 어떤 지표에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고, 열위에 있는지를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를 통해 우리가 단시간 내에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의 목표가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 국제화의 평가는 가능한 모든 지표를 반영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의 결과가 애매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면 도시 국제화 평가에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외국인 거주자들이 직접 평가의 주체가 되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혼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넷째, 평가지표의 경우 자료의 획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도시들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도시에서 만들어 발표하는 자료를 먼저 분석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도시들에서 조사가 가능하거나 통계자료가 있는 지표를 추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평가결과의 활용적 측면이다. 평가결과를 단순히 발표하여 순위를 정하기보다 도시의 경쟁력을 항목별로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서열을 발표하여 얻는 것보다는 도시의 현 위상을 파악하고, 어떤 항목에서 분발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어떤 항목에 우선적으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진단하고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전략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평가할 때마다 지표나 가중치를 바꾸기보다는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계열 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화의 수준과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들은 통계청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발표하여 도시 국제화 및 경쟁력 진단 및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산업생산이 호조세를 보이고 고용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부진, 물가상승률 확대, 금융시장 불안, 대외 거래감소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2011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3월까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4월부터 다시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고유가 주요국의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우려 지속, 미국 부채 협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시는 집중호우, 추석 등에 따른 물가불안 소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물가인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내수 기반 확충, 경제체질 개선 등 지속성장 및 고용창출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

- 2010년 하반기 하강국면을 보이다가 2011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3월까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4월부터 다시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 산

- 2011년 6월 산업활동은 화학업종 등의 공급애로로 인위적 완화에 힘입어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여 상반된 모습이다.

소 비

- 2011년 6월 민간소비는 전월대비로는 내구재 중심으로 판매가 부진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보험세를 보임. 향후 소매판매는 고용회복 등에 따른 소비여력 증대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을 감안할 경우 7월 소매판매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고 용

- 2010년 6월 고용시장은 전월대비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실업자가 감소하고 실업률도 하락하여 대체로 개선세를 보임. 전년동월대비로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 감소 및 실업률 하락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인다.

물 가

- 2011년 7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의 큰 폭상승, 정유사 공급가 환원 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대폭 상승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안정 기미에서 최근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 융 시 장

- 2011년 7월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부채한도 협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대 외 거 래

- 2011년 5월 수출은 반도체 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며, 수입 역시 원유도입 단가 하락 등으로 수입액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은 소폭, 수입은 증폭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폭은 지난해보다 확대되었다.

반짝이는

대전발전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공모

- 응모기간 : 2011. 7. 1 ~ 11. 30
- 제안분야 및 내용
 - 경제분야: 대전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환경분야: 대전광역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디어
 - 사회분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 명성분야: 종합적으로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 선정 및 상금
 - 최우수상(분야별 각1명): 3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우수상(분야별 각1명):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등록방법
 -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
 - '시민의소리/제안합니다' 코너 활용(www.cjdire.kr)
- 문 의
 - 지속가능성조사센터 방정희 042-530-3566